

인공강우 실험 “약한 안개비 관측”

기상청이 환경부와 진행한 미세 먼지 저감 영향 분석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 결과, 유의미한 강수 관측이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환경부와 공동 실시한 미세먼지 인공강우 첫 실험 결과에 대해 1차 발표를 하며 “기상청 공기 관측 결과 구름 내부에서 강수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관측됐으나, 기상 선박 및 지상 정규 관측망에서 유의미한 강수 관측은 없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항공기에 장착된 구름물리 측정장비(구름 입자 및 강수 측정기)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 구름 내부에서 강수 입자의 크기가 증가된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인공강우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전라남도 영광 지역의 지상 정규 관측망과 기상 선박에서는 강수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로 관측될 수준은 아니었지만 영광 지역에 위치한 모바일 관측 차량에서 수분 동안 약한 안개비 현상이 있었다”며 “기상 선박 주위의 해상에 비를 포함한 구름도 목적과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군산시 120km 떨어진 서해상에 기상항공기를 띄워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연구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 ▲선박 ▲이동관측차량 ▲도시대기측정망 등 기상장비와 환경장비가 다양하게 활용됐다.

기상청은 기상위성 영상과 이동 관측 차량 관측정보, 수치예보 모델 예측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실험 당일 기상조건이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오전 10시부터 영광 북서쪽 110km 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했다.

기상항공기는 오전 10시경 인공강우 물질(요오드화은)을 살포한 뒤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했고 기상관측선은 인공강우 실험 효과 관측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상관측선에 장착한 미세먼지 관측장비와 내륙의 도시대기측정소 등에서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기존의 인공강우 실험은 육상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실험은 육지에서 약 110km 이상 떨어진 서해상에서 광범위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향후 인공강

“실험 이후 구름 내 강수 입자 크기 증가”
“정규 관측망 등에는 유의미한 관측 없어”
“약한 안개비 현상 등 정밀 분석 진행 중”
미세먼지 대책으로 부상...효과 검증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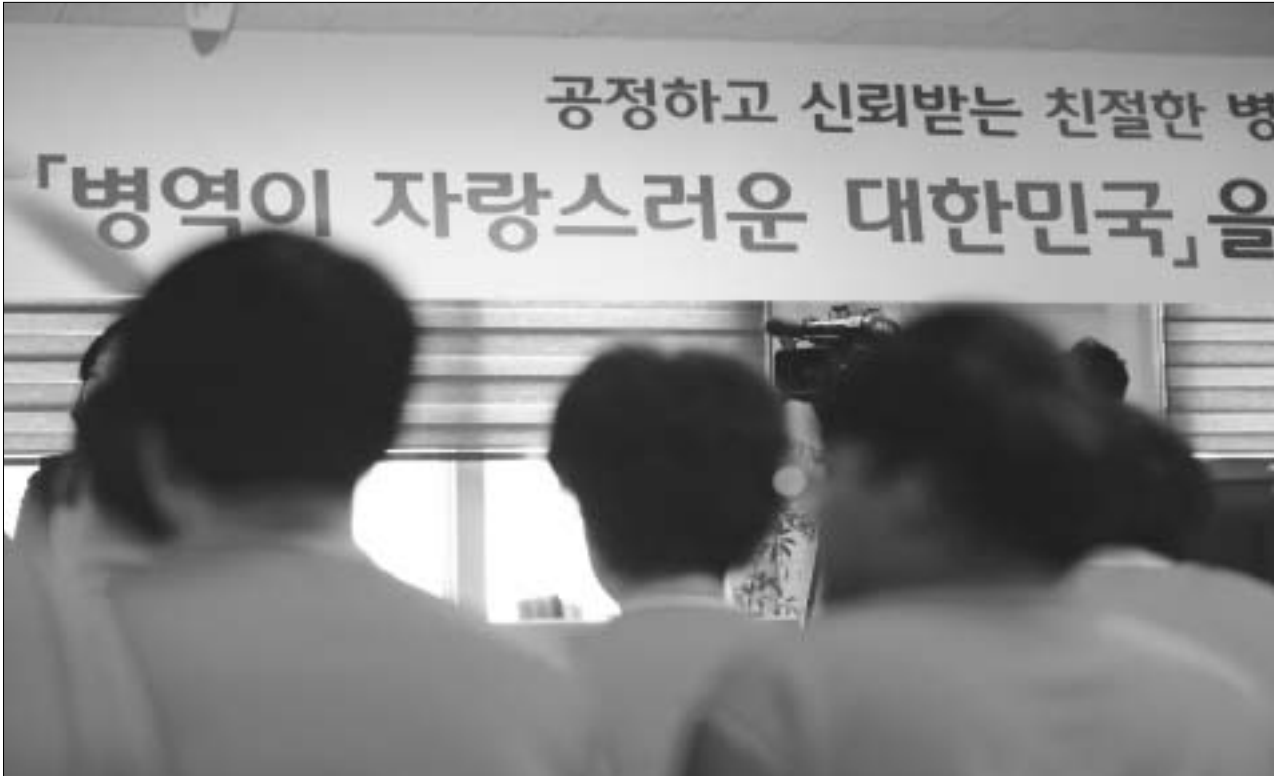
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인공강우는 기존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지만 최

근에는 급격히 심해진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효과 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실험을 통한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월 말에 기상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 분석 발표에는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한 구름 발달 분석, 인공강우 물질 살포 직후 구름 내부의 강수 입자 관측 자료 상세 분석, 기상 선박의 미세먼지 관측 자료 및 인근 지역 도시 대기 측정망 관측 자료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다.

뉴스스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피검 대상 청년들이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전남 초등·유치원 새내기 교사 ‘우면파워’

광주·전남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여초(女超)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8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34명(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가운데 여성이 29명으로 85%를 차지했다.유치원은 13명 모두 여성이고, 특수학교 교사 11명도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다.

전남은 전체 합격자 338명 중 224명이 여성으로, 비율로는 66.7%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광주가 377명, 전남이 896명으로 각각 11.1대 1,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교단 성비 불균형은 우선 남성지원자가 숫적으로 적고 성적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 합격자는 광주의 경우 2월 11~19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전남은 2월 11~15일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각각 임용 후보자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업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생에게 남녀 교사의 역할모델은 중요하다”며 “교단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 경로당 화재’ 인화물질 추가 확인

2명이 숨진 완도 경로당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잔해물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추가 확인됐다.

완도경찰서는 28일 완도 경로당 화재사건 현장 감식결과 바닥

잔해물에서 인화성 물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또 바닥 잔해물과 수거한 1.51 페트병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내 기초수급비로 술값 냈다’ 지인 폭행 5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건넨 기초생활수급비로 술을 마셨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5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이 건넨 기초생활수급비를 술값으로 썼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 호감을 표현하며 수개월 동안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수급비를 받을 때마다 매달 30만원 가량을 B씨에게 건넸다. 받은 돈을 술값으로 쓴 B씨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구애 거절 女 폭행 뒤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50대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북구 A(58·여)씨의 아파트 자문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부탄가스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주유소·마트에서 휘발유 16.1와 부탄가스 20개를 구입한 뒤 흥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달 22일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흥기를 들고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입건됐다. 합의해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자택을 찾아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했다 소란을 피웠으며,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락 안 받는다’ 20대 위협·감금 일당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를 차량에 감금하고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감금·특수협박)로 A(3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미용실에 있던 B(26)씨와 B씨 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흥기로 위협하며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은 대출을 증용하기 위해 연락한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속여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700만원을 가로챘으며, B씨에게 추가 대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일 동안 B씨의 행방을 쫓아다녔으며, B씨 친구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B씨와 함께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검사 음주운전 적발...뺑소니 혐의까지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이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를 내버려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하던 김씨는 이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28일에도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6%로 확인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